



보도	2024.12.13.(금) 석간	배포	2024.12.12.(목)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담당자	선임조사역	안상현	(02-3145-8052)

## '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1. 개 요

□ '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5%)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43%) 대비 **0.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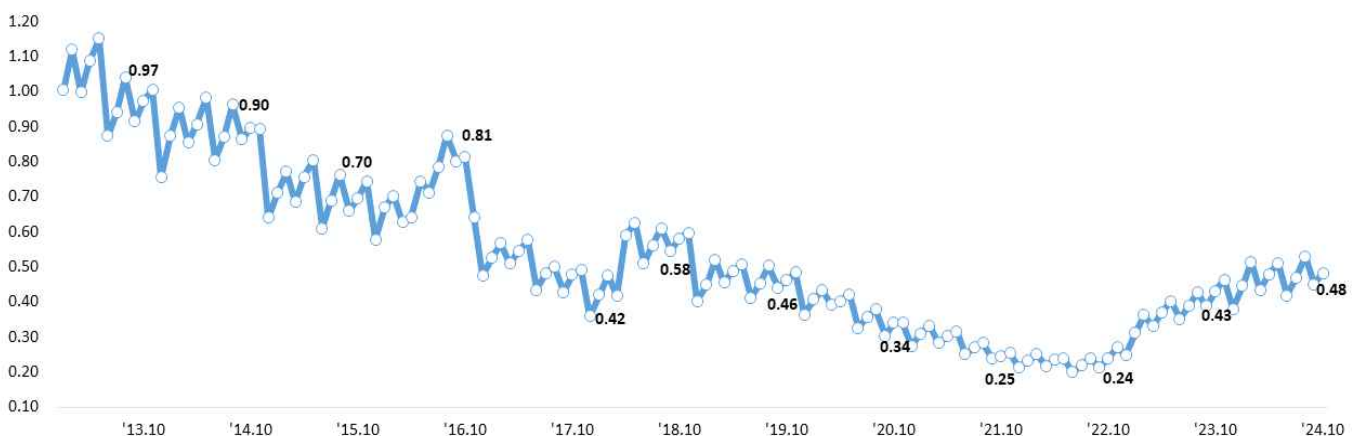
○ '24.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조원)은 전월(2.5조원)과 유사하며, 연체 채권 정리규모\*(1.7조원)는 전월(4.3조원) 대비 **2.6조원 감소**

	(22.10월)	(23.10월)	(24.5월)	(24.6월)	(24.7월)	(24.8월)	(24.9월)	(24.10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1.2	2.4	2.7	2.3	2.7	3.0	2.5	2.5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0.6	1.3	2.0	4.4	1.5	1.4	4.3	1.7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0.6	1.0	0.8	△2.1	1.2	1.6	△1.8	0.8

○ '24.10월중 신규연체율('24.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9월말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11%)과 유사]

\* 신규연체율(%): ('23.10) 0.11 → ('24.6) 0.10 → ('24.7) 0.12 → ('24.8) 0.13 → ('24.9) 0.10 → ('24.10) 0.11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13.1월~'24.10월)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4.10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52%)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48%) 대비 0.08%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04%)은 전월말(0.04%)과 유사  
[전년 동월말(0.19%) 대비 0.15%p 하락]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0.65%)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55%) 대비 0.15%p 상승]
    - 중소기업인 연체율(0.74%)은 전월말(0.68%)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59%) 대비 0.15%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5%)은 전월말(0.61%)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51%) 대비 0.14%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6%)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01%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5%)과 유사  
[전년 동월말(0.25%)과 유사]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6%)은 전월말(0.69%)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71%) 대비 0.05%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12월~'24.10월)	'22.10월	'23.10월 (A)	'24.7월	'24.8월	'24.9월 (B)	'24.10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26	0.48	0.53	0.62	0.52	0.56	0.08	0.04
대기업		0.07	0.19	0.05	0.05	0.04	0.04	△0.15	0.00
중소기업		0.30	0.55	0.67	0.78	0.65	0.70	0.15	0.05
중소법인		0.37	0.59	0.71	0.84	0.68	0.74	0.15	0.06
개인사업자		0.22	0.51	0.61	0.70	0.61	0.65	0.14	0.04
가계대출		0.22	0.37	0.38	0.40	0.36	0.38	0.01	0.02
주택담보대출		0.13	0.25	0.25	0.26	0.25	0.25	0.00	0.00
가계신용대출등		0.43	0.71	0.76	0.82	0.69	0.76	0.05	0.07
원화대출계		0.24	0.43	0.47	0.53	0.45	0.48	0.05	0.03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10월말 연체율(0.48%)은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전월과 유사하나 연체 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감소(△2.6조원)하면서 +0.03%p 상승\*

* 구 분	'23.9	'23.10	'23.11	'23.1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4.10
연체율	<b>0.39</b>	0.43	0.46	<b>0.38</b>	0.45	0.51	<b>0.43</b>	0.48	0.51	<b>0.42</b>	0.47	0.53	<b>0.45</b>	<b>0.48</b>
전월 변동	△0.04	+0.04	+0.03	△0.08	+0.07	+0.06	△0.08	+0.05	+0.03	△0.09	+0.05	+0.06	△0.08	+0.03

※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 등으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

- 국내은행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반면, 손실흡수능력은 크게 개선되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 코로나19 이전 10년('10년~'19년) 평균 연체율은 0.78%

** 구 분 (%)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6말	'24.9말
대손충당금적립률	104.2	<b>112.1</b>	138.3	165.9	227.2	214.0	188.0	<b>187.4</b>

- 또한,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